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산다”

제 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천왕리그’ 16팀



세화렌트카 (대표 윤수영)

2009년 창단. 폐기와 도전 정신을 앞세워 무등기를 통해 세화렌트카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었다.
 ▲감독 박동원
 ▲선수 민상철 임동범 김기석 이광인 김경환 임은성 전영언 홍수인 김용두 임근수 조길호 강종욱 김민선

맥스나인 (대표 흥현상)

2000년 창단. 그라운드에서 오르는 9명의 팀워크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매너있는 경기와 즐겁고 아슬아슬한 야구를 꿈꾼다.
 ▲감독 흥현상
 ▲선수 이인석 장용준 권광호 정현웅 강우석 김철웅 차인준 김선우 이상욱 차영준 안정철 김태인 강정문 제형관 송재범 채홍기 나대현 김희주

베프스 (대표 박진호)

2008년 창단. 71년 돼지띠 동갑내기들이 주축이 되어 소수정예로 투타에서 빛나는 최강의 실력을 예고한다.
 ▲감독 박진호 ▲총무 오명진 ▲코치 유재민 ▲선수 김용규 허승현 김동현 김성민 김행범 나중호 서권홍 정문석 최귀환 장귀승 박해원 송국일 정효중 박운석 정종일 기강열 박태호

흔 (대표 정승원)

2006년 창단. 1부 리그 강팀들과의 경쟁에 긴장도 있지만 2부 리그 강팀의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다.
 ▲감독 정승원 ▲총무 문정연 ▲코치 조영봉 ▲주장 이기행
 ▲선수 김남균 박정관 임응진 박춘재 유원주 박정훈 박종표 노태웅 박성운 봉재훈 김재원 박종근 김상은

페가수스 (대표 오광석)

2001년 창단. 우리 팀의 실력을 확인하고 많이 배우는 대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감투를 거듭하겠다.
 ▲감독 오광석 ▲총무 박상태 ▲타격 코치 임호성 ▲투수코치 최동훈 ▲수비 코치 손우광
 ▲선수 정동준 김경표 정희석 김영학 이창호 임창일 김상호 제승현 염원섭 이석우 임성찬 주영환 안범모 정다운 김종성

아이프렌즈 (대표 김영호)

2007년 창단. 수차례 지역 리그전에서 우승했던 경험을 살려 제1회 대회 무등기를 품겠다.
 ▲감독 김영호 ▲회장 송주익 ▲총무 정영산 전은수
 ▲선수 강기혁 김남국 김영천 이동규 김진업 여길현 김대일 김성훈 임용백 송석중 이종문 김장수 송하진 서광조 박용희 최희성 도영진 김건국 백한별 신경주 안현식

포비스YB (대표 손영생)

2009년 창단. 우승도 좋지만 사회인 야구이니 만큼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페어플레이를 펼쳐 모두가 즐거운 야구를 하겠다.
 ▲단장 손영생
 ▲선수 이성민 윤경환 백희진 백두진 나병준 임형수 최희환 김진욱 나길주 이상문 조정희 박용철 김혁민 박기용 윤성용 김민철 최인석 심태선 나병현 장순중 오동찬

쓰나미 (대표 양준태)

2009년 창단. 2010년 광산구생활리 신생팀 준우승의 돌풍, 실력·매너·화합을 바탕으로 멋지고 패기 있는 최강 쓰나미를 꿈꾼다.
 ▲감독 양준태
 ▲선수 임병민 김창호 강기석 이선중 양병직 박선주 송승렬 유시홍 서기훈 장인창 육경환 최웅 김이호 양민준 한국일 조은강 양현근 정영일 신광유

거창골벌스 (단장 서귀영)

2008년 창단. 끈끈한 팀워크와 즐기는 야구로 2011년 진흥리그장배 우승의 경험을 살려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
 ▲감독 오요안 ▲코치 고윤석
 ▲선수 박재영 임현 안혁 노영재 김인권 고한석 손석구 유인상 이영석 조은석 조영선 박종호 조자룡 민홍일 이완호

예술래티스 (대표 이형석)

2005년 창단. 7년의 끈끈한 우애로 이어진 전통의 팀 예술래티스, 특유의 팀워크로 무등기 정상에 도전한다.
 ▲고문 민병철 ▲감독 이형석 ▲총무 박원식
 ▲선수 김용환 이상현 최주성 이철규 유영복 김성철 손승수 이승용 류세환 윤관 정진수 김경태 박철 이성원 선영수 이상준 이정운 나경호

푸른바다 (대표 서경복)

2003년 창단. 수차례 전국대회를 우승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팀 분위기를 쇄신해 우승에 도전하겠다.
 ▲감독 서경복 ▲총무 조형철
 ▲선수 김종일 조동선 윤정담 박현석 배광철 강관식 송용국 김성만 배병식 박종호 김광석 최희천 박형식 정동형 정영태 이진상 이수연 이정훈

지누스포츠 (대표 유진우)

2009년 창단. 지난해 전국 4개 대회 출전 4차례 우승을 차지한 지누스포츠 팀, 화려한 공격 야구와 든든한 투수진으로 우승까지 달리겠다.
 ▲감독 양성환 ▲코치 임도현
 ▲선수 박래준 김태완 김영진 최용희 이상을 김만철 허재웅 오상훈 이재현 류영광 송장근 허용석 양기성

투어채널 플러스 (대표 박홍범)

2011년 창단. 순수 아마추어들이 모여 만든 신생팀, 매 게임 최선을 다하는 즐기는 야구를 하겠다.
 ▲감독 김진희 ▲코치 박동표
 ▲선수 김준호 박서관 이공속 고재수 정세형 손화진 광명석 김봉환 홍서일 김종진 고정열 임현수 정승원 박근용 박홍범

디스크스 (대표 안종문)

2009년 창단. 다른 리그 팀들과의 승부보다 넓은 안목과 야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무등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감독 김영대 ▲코치 이형석
 ▲선수 윤지현 이지현 윤희상 노승기 서선대 김유석 안승평 김희희 조성열 이건욱 김남훈 김영두 이상범 조용호 송승용 정종남 노성규 이상진 정영규 박선호 김상은

광주 워리어스 (대표 임진강)

2003년 창단. 올해 첫 참가한 봉황기 대회 1회전 패배의 아픔을 제1회 무등기 대회에서 설욕하겠다.
 ▲감독 임진강 ▲부감독 김민영
 ▲선수 박상선 박재석 한상훈 박정기 서항진 최승환 박찬모 문성모 조광수 서상석 김지현 최태영 김용연

파이어볼스 (대표 이호)

2005년 창단. 2007·2008년 사회인야구리그 2년 연속 우승위업, 최선을 다하는 야구, 인성과 열정을 겸비한 야구를 지향한다.
 ▲감독 이호
 ▲선수 나성주 김홍렬 고재성 채효석 정남인 최정민 박학형 강항만 김병록 민경남 송우승 박성남 추경업 김주철



KIA 타이거즈가 함평 학교면 곡창리 일대 2만4000평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전용연습구장 전경.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특급 연습구장 지었다

함평에 주경기장·실내 연습장·클럽하우스 등 갖춰

200억 투입... 경기장 9월말 완공

“최고의 구장을 짓는다” KIA 타이거즈가 함평에 건립하고 있는 전용 연습구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KIA는 지난해 5월 함평 학교면 곡창리 일대 2만 4000평 부지에 주경기장과 내야 연습장, 실내 연습장 그리고 클럽하우스(지하 1층·지상 2층)로 구성된 전용 연습구장 건립에 들어갔다.

2009년 V10을 달성한 뒤 구단의 전폭적인 투자 약속을 받으면서 200억원이 투입된 대공사에 시작된 것이다. 터뒀기 작업을 시작으로 내야연습장 인조잔디 포설 작업을 마쳤고, 현재 주경기장 인조잔디 포설 작업과 배수관 설치 및 재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장 공사는 오는 9월말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영산강을 내려다보는 주경기장은 좌우 펜스까지 100m, 중앙 펜스는 120m 규모. 내야 연습장은 가로와 세로 각각 60m 규모다.

체계적인 훈련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연습구장인 만큼 선수들의 동선을 고려해 ‘편의’를 우선으로 했다.

환경을 고려해 덕아웃 천장 높이를 높이고, 덕아웃 옆에 불연 시설을 마련했으며 휴팅은 물론 원정팀을 위한 샤워시설도 들어선다.

함평 전용 연습구장을 하나의 야구 명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본부석 위에 5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마련하고, 1·3루 쪽에 잔디 관람석을 설치해 가족단위의 팬들이 찾아 자연스럽게 2군 경기를 관람하고 훈련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 연습구장의 야심작은 실내 연습장과 클럽하우스. 가로·세로 50m, 높이 15m 규모로 건립될 실내 연습장은 투구·타격·수비·작전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어질 예정이다. 클럽하우스는 20개의 객실과 라커룸, 식당, 휴게실, 헬스장, 의무실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클럽하우스는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T’자 형태로 실내연습장과 일체형으로 지어진다.

10월 초 토목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클럽하우스와 실내연습장은 미술가 서도호 씨의 친동생으로 유명한 하버드 출신의 서을호(주)서아티팩스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 작업을 맡았다.

전용구장 신축을 약속했던 정 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서 대표와 수 차례 면담을 갖고 설계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전용 연습구장 건립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기력 향상과 유망주 및 기대주에 대한 집중 발굴과 육성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경문 NC 감독 “목표는 4강”

“패기있고 힘찬 팀 만들겠다”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다이노스의 김경문 초대 감독은 6일 “형님팀을 괴롭혀 1군 리그에 참여하는 첫해에 4강을 목표로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날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막내팀으로서 패기있고 힘찬 팀을 만들어 모든 창원 야구팬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새로운 팀에서 젊은 선수들과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감독을 맡기로 했다”며 초대 감독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참여하는 2군 경기에 대해서는 “이기는 쪽보다 좋은 선수를 한명이라도 찾아내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고 우수 선수 발굴을 강조한 김



감독은 “기존의 야구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NC는 매력이 달라야 된다고 본다. 팀 컬러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발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분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김 감독은 “두산 야구단을 떠날 때 마음이 아팠지만 큰 공부가 됐다”며 “두산 구단과 팬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창원에서 꿈을 다시 펼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감독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NC다이노스의 2차 선수선발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마산야구장을 찾아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유·스퀘어사우나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 (침대) · 피부샵 (스포츠마사지) ·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 위치 :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 062) 352-4455